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김 종 성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이 대담 시리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 안팎의 관심을 높이고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려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이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오랫동안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켜온 인물들을 찾아 그들의 경험과 의식 속에 쌓여 있는 역사를 끌어내어 오늘을 비추어 보고 내일을 전망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번 대담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초창기에 많은 활동을 한 조재후 선생이다. 선생은 부산중, 경남여고, 부산고 등에서 10여 년간(1953-1963) 사서교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부산시 교육위원회 연구사 및 장학사(1963-1972), 문교부 중앙 시정 각교육원 연구관(1972-1973), 문교부 장학관(1973-1975), 서울시 동부 교육구청장(1980-1982) 등으로도 활동하셨다. 또한 영등포중, 혜화여고, 용산공고, 경기상고 등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시고 정년퇴임후 현재 서울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다.

대담 일시: 1998년 5월 2일 오전9시 30분-오전 11시 30분

대담 장소: 서울 정화여상 교장실

김종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활동하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한 번 돌아보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후: 예, 반갑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배를 만나게 되어 저도 무척 기쁩니다. 제가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이야기지만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지요.

김종성: 선생님께서 처음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조재후: 해방과 육이오를 겪은 후 비참한 상황 속에서 교육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개선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새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표출이 되는 시대였지요. 그리고 그 교육 개선의 방향은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모아졌지요. 당시는 칠판과 백묵, 그리고 교과서가 전부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구태의연하고 타율적인 학습 방법을 자율적인 학습 방

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부 선각자들이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아 학교도서관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학습 방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시설은 도서관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게 된 겁니다.

김종성: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이나 사서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조재후: 내 생각에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지원으로 연세대학에서 실시된 사서교사 강습을 받은 겁니다. 1959년 여름 방학과 1960년 겨울 방학에 실시한 제 3회 사서교사 강습회였는데, 거기에 김두홍 선생, 김세익 선생, 김경일 선생 등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종성: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연세대학에서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지도로 사서교사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해 보면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을 태동시킨 원동력은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 이전부터라고 해야 됩니다. 이미 1950년대 초기부터 학교도서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도서관을 담당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피바디 사절단의 사서교사 강습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지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

니까 전국으로 파급시키는데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당시 사서교사 강습에는 전국에서 유능한 교사들이 선발되어 왔으니까요.

김종성: 여러 가지 자료나 증언을 참고해 보면 당시 사서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사서교사직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철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조재후: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서교사는 '매스터 키(Master Key)'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교과에 다 통하는 열쇠라는 의미지요. 일반 교과 교사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통하는데 반해 사서교사는 모든 교과목에 다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업무나 도서관 이용지도를 통하여 모든 교과 수업을 지원하고 수업 개혁에도 직접 참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이미 확립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 이러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과 그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신념 때문인지 당시 사서교사들은 비교적 유능한 교사들로 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재후: 사서교사들은 비교적 현직 교사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일부터 하자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대접이나 주위의 인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일 하기 전에 대접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교직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 이 분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종성: 그런데 당시 사서교사들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하지만 한편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쇠퇴했다는 면에서 운동의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반성해볼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후: 그때 우리는 권리 주장은 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상담)교사들은 일보다도 자기들의 지위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에 대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문교부에서 그런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할 수 있었어요. 사서교사들과는 비교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한 만큼 대접을 받았습니니다. 대부분 좋은 자리로 영전해 가고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뒤를 이을 후배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후배들을 생각했다면 지위 문제나 권리 주장에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사서교사가 설 땅이 좁아진 거지요.

김종성: 그러니까 사서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군요. 그게 당시로는 잘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이군요.

조재후: 그게 아쉽다기 보다는 잘못됐던 거예요. 그것(제도적인 문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내세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로써 자리를 찾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으로 자리를 찾자 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좀 잘못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교사들은 일 안 해도 일단 자

격을 높이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김종성: 1960년대의 운동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었군요. 지방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1960년대에는 학교도서관이 교육 현장에 널리 퍼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군요.

조재후: 우리 나라는요. 행정당국의 생각이 교육에 절대적입니다. 지금 교육개혁 하는 것도 밑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도서관 운동도 밑에서부터 개혁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행정 당국의 생각이 달라져야 가능합니다. 지금도 행정당국에서 다시 관심 가지면 금방 좋아집니다. 장관이나 누가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종성: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교육이 크게 팽창하게 되는데 학교도서관은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침체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조재후: 교육은 점점 팽창해 나가는데 교육에 대한 생각이 교과서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정당국이나 교장들이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지요. 과학실이다 가사실이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공간이 남으면 도서관 하는 식이었지요. 한마디로 사서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형성되던 학교도서관 운동 열기를 교육행정을 좌우하는 윗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갔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성: 기본적으로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은 교

육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소외가 심화되는 현상이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군요. 그런 와중에 이전부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던 현장 사서교사 그룹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가게 되었다고 보아야겠군요.

조재후 : 1970년대에는 현장에서 주도하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홍 선생, 이규범 선생은 대학으로 갔고 나는 문교부로 옮겨갔습니다. 초기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지요. 나도 1970년도에 문교부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을 세웠어요. 아마 1974년의 일일 겁니다.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을 세워서 장관 결재를 받아 전국으로 시달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할 후임자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을 지도할 기회가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이처럼 이전에 학교도서관 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을 떠나게 되고 운동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지요.

김종성 :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대학교수로 옮겨가신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학교도서관 운동 차원에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재후 : 학교도서관만 붙들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교장하고 대학교수하고 하는 바람에 다 떨어진 거지. 지금도 김 선생이 와서 내가 도서관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도서관보다 더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자기

가 처한 상황에서 더 시급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달려들지 못하고 있지요.

김종성 : 1970년대에는 이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거기서 배출한 인력들도 있었는데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운동의 맥을 잇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군요.

조재후 : 그때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었는데, 도서관학과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우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갭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학교도서관 운동을 몇몇 전공 교수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 문제는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현장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 가면서 안되면 도움을 받자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모임을 하면 우리 현장 문제는 집어치워 놓고 근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교육이 침체되는 큰 원인의 하나도 그겁니다. 모이면 그저 대학 교수 모셔다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놓고, 일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현장하고 유리되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김종성 :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려면 행정당국이나 제도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서교사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힘을 이끌어내는 것도 예전과는 다른 방법이 동원되어야 겠구요.

조재후 : 지금 학교도서관 운동을 사서교사들이 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령 사서교사를 하면 1급으로 진급하는데 유리하다든지 별도의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사서교사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잖아요. 요새 누가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려고 합니까. 방학 때 나와서 자료 정리하고 수업 자료 준비하고 해야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학교도서관 안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 운영하기 위한 자료도 시설도 재정도 없지만 땀과 창의와 노력으로 타개해 나가는 슬로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땀과 창의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니까 하라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지금보다 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육방법의 혁신은 도서관을 매개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김종성 : 교육개혁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교육정보화다 멀티미디어화다 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도 학교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옹호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주도권을 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재후 : 물론입니다. 지금 교육정보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체계 있게 관리해서 뒷바라지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학교도서관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디오테잎이니 시디롬이니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학교 다 가봐도 체계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사서교사가 파악하고 있으면서 정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교사가 무슨 데일이 필요하다 하면 사서교사가 잘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사서교사의 입지가 살아나고, 저 사람은 내가 수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일반 교사들만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서교사 자격이 없는 거지요. 수업하다가 뛰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도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는 해주어야 하지요. 사서교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책 정리나 하고 자료 정리나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소극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이용자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김종성 :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서울 지역에서 교육행정가로 또 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그 전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었습니까? 교육행정부의 위치에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조재후 :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갖지를 못해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현장의 문제가 많거든요. 상업학교에 가면 상업학교의 문제가 있고, 공업학교에 가면 공업학교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학교도서관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서관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앞세울 수는 없는 거지요. 교장의 입장에서 그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나하고 함께 일한 사서교사들에게는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줬지요. 박용두, 이정희 선생이 나하고 같이 일한 사서교사들인데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김종성: 선생님께서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72년에 서울로 오셨는데 당시 서울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부산 경남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에 있었습니까?

조재후: 서울에도 김경일 선생 등이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로 자기 학교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부산 경남 지역처럼 전 지역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때 부산 경남 지역에는 열심히 하는 사서교사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부산시 교육위원회 장학사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후임자로 박태신 선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서교사로 활동할 때만큼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학사의 자리가 도서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도서관을 이야기해야 되지 도서관만 이야기해서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김종성: 1960년대 말까지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수준이 외국의 전문가들도 칭찬할 정도로 부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재후: 1970년대까지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이 일본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일본 학교도서관계와 교류를 해도 조금도 꼴리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학교도서관 분야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학교도서관 분야만은 일본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격차가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는 조금씩 혹은 많이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후퇴를 했으니까 당연한 귀결이지요.

김종성: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학교도서관이란 것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조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도서관 관(觀)이라 할까요, 학교도서관은 학교라는 공적인 교육의 장에서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후: 학교에 있어서 도서관은 교실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개념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라고 하면 자기 교실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선생님 해도 자기 담임선생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라는 건 모든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개념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지요. 일반 과학실이나 가사실 같은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교실보다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문제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가서 너희들이 해답을 찾아봐라 하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발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하는 학교는 전국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의 개념을 넓혀 주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잘 운영하면 아이들이 우선 아침에 와서 도서관 들어가고 나갈 때 도서관 들어가고 수업 중에 문제 있

으면 도서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의 생활 공간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가야지 학교도서관이 성공하는 겁니다.

김종성 :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생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서교사의 역할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후 : 사서교사는 수업을 안 맡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즉, 양호교사들은 지금 생리학 가르치거든요. 교사는 아이들과 직접 생활하고 수업을 해야 교사지 도서관만 맡고 있으면 무슨 교삽니까. 그 전에는 사서교사의 교수활동이 일반 교사들의 활동에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서교사 하면 수업 안 하는 게 사서교사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박용두 선생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나는 수업을 맡겼어요. 무슨 수업이냐 하면 '도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라는 과목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일학년 학생들을 맡아서 수업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이 당연히 다른 선생님들보다 인기가 있게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니까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큰 소리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지요. 수업 안하고 자기 자리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우선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충실하게 만들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전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도서관을 배경으로 자료 이용교육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 내팽개쳐 놓고 수업만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김종성 : 그런 면에서 사서교사는 일반 교사나

사서보다도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해야 겠지요.

조재후 : 그렇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메스터 키'거든요. 박용두 선생이 경기상고에 있을 때는 교사들이 박용두 선생 말이면 잘 들었어요. 방과후에 운동하자고 이야기하면 모두 모이고, 그 양반이 어려운 아이들 좀 도와주자 해서 선생님들 자체 장학회도 만들고 했어요. 교사들을 리드하는 거지요. 자기가 도서관만 맡고 있으면 그런 역할을 못하죠. 일반 교사들이 인정을 안 해 주죠. 교장은 이렇게 사서교사를 키워야 되고 사서교사는 그렇게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김종성 : 선생님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지침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지켜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후 : 별로 좋은 이야기도 없는데 이 먼 곳까지 와 줘서 고맙습니다. 학교도서관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Bangkok
August 20-28, 1999

◆ 참가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담당 박경아)

* 관련기사 : 62쪽, 71~75쪽 참조